지역 활성화를 위한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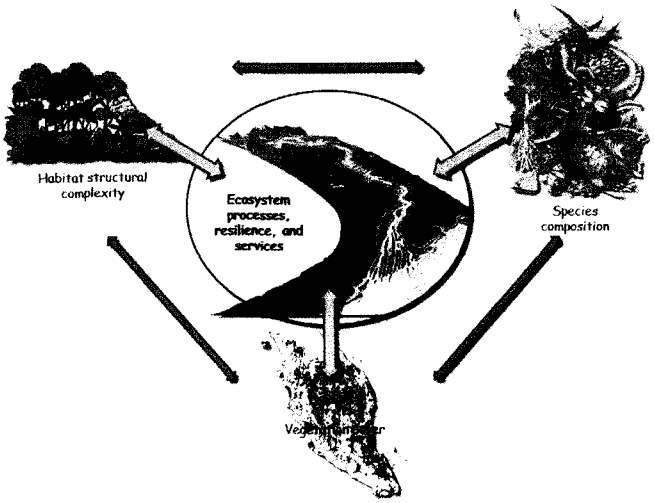
오민근 | 문화체육관광부
시장과 문화 컨설팅단 컨설턴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ufo1009@paran.com)

1. 지방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

지난 호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호에서는 도시화 비율이 적은 지방에서의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형성에 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림 1〉의 개념도와 같이, 생태계는 크게 세 가지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되고, 그 건강성이 지켜지고, 아울러 종다양성까지 확보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필수적인 상호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우리가 바다, 하천, 시내, 개울, 여울, 연못 및 호수 등이라고 부르는 크고 작은 물줄기들이 이러한 세 요소들을 연결시켜 그 요소들이 존속되고 유지되고 변화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경로의 주변은 그것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환경조건 등을 오랜 시간에 걸쳐 갖추게 된 것이어서, 이는 곧 해당 하천의 풍경을 형성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하천경관의 관리는 바로 해당 하천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하천형성의 역사와 자연환경적 여건, 치수 등의 물관리정책 및 사업의 역사적 맥락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하천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고 활용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상을 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1〉생태계의 진화과정, 변화에 대한 탄력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의 제공
*출처 : Managing diversity in the landscape - Guidelines for Planners, Decision-makers & Practitioners, 2009, Government of Malaysia, p.9

2. 통상적인 하천경관 계획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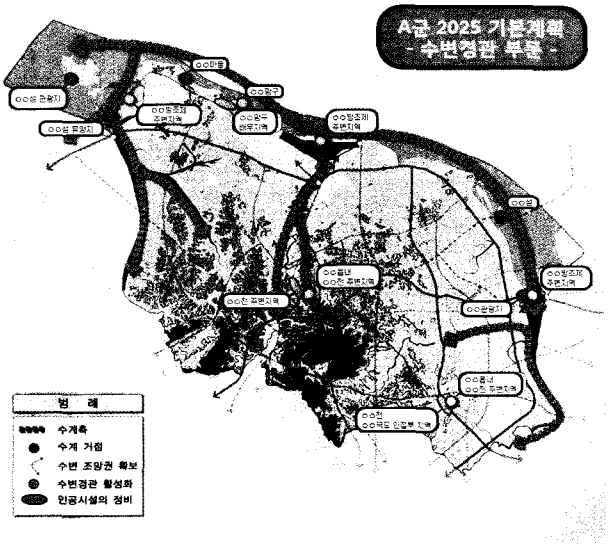
소위 행정구역 위계상 '군' 단위의 지자체에는 도시화비율이 높은 면적이 그리 많지 않다. 군단위에서의 도시기본계획상에서 하천경관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담아야할 부문별 계획의 종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천 자체가 아닌 하천경관에 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 상에서도 그렇게 담아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다. [1]

〈그림 2〉는 어느 '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수변경관 부문'의 계획에 사용된 개념도이다. 대개의 지자체 기본계획에서

2025 A군 기본계획 - 수변경관 - 기본방향

- 수변의 개방감 및 통일성을 위하여 인공시설물의 층고, 형태, 배치의 관리
- 주변 녹지경관과 연계한 질 높은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 해안, 하천으로 접근 및 이용시설 확보로 이용객의 증대

1) 물론 여기에는, 대부분의 기본계획수립을 엔지니어링 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데에 따른 하천경관 전문가 혹은 경관전문가가 해당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미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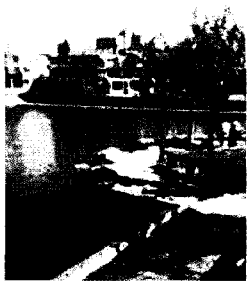


〈그림 2〉2025 A군 기본계획의 '수변경관'부문
*필자 주 : 본 글에 인용된 국내 '2025 A군 기본계획'의 그림과 표와 사진들은 글의 전개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군과 군내 여러 지명 등의 실제 명칭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양해바랍니다.

'수변경관' 혹은 '하천경관'에 대하여 서술할 때, 기본방향으로 아래와 같이 적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렇게 수립되어,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혹은 각종 하위 정책 및 사업의 수립 및 시행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경관' 부문의 계획 내용에서, 경관을 산악, 평야, 수변, 도로, 시가지, 역사문화경관, 농촌 등 '유형별'로 구분한다고 하고 있고, 이를 다시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경관색채, 야간경관, 공동주택, 단독주택, 산업단지, 상업지구 등의 '경관요소'별로 구분하여 '경관가이드라인(<표 1>참조)'을 제시한다고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아래의 표에서는

<표 1> 예) 2025 A군 기본계획의 수변경관 가이드라인

2025 A군 기본계획상에 나타난 '수변경관 가이드라인' 내용			필자의 견해
수변의 개방감 확보	● 하천/해안-이용자-녹음-건축물로 연계한 점층적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 종별 세분화 및 최고고도지구를 통한 하천/해안변 건축물에 대한 층고관리 ● 해안선, 하천변에서 일정간격 건축물의 이격거리 확보		■ 해당 도면에서 수변에 주거단지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침 내용과 맞지 않음 ■ 예시 사진이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
수변으로의 접근성 확보	● 주변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형, 이용형 등 정비유형의 다양성 확보 ● 수변 공간에 대한 산책로, 인라인, 자전거도로 등 휴게/위락시설 확보 ● 육교 및 횡단보도 정비 등을 통한 수변으로 접근성 확보		■ 예시 사진에서 모래사장에 접하여 간선도로가 지나고 있으므로, 수변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수변(해안변, 하천변)을 주거단지 및 관광지 등으로 개발예정인지는 몰라도, 주변이 대체로 농경지인 현 상태로서는 휴게 및 위락시설 확보 지침이 무의미
조망공간의 확보	● 수계축을 중심으로 산지 및 평야경관으로의 시각적 연계성 확보 ● 수변과 도로의 교차구간에서의 조망공간 조성 ● 방조제, 교량에 대한 조망공간 확보로 수변의 다양성 형성		■ 수변과 도로 교차구간에서의 조망공간 조성 지침은, 표현의 애매함에 의해 오해 소지가 존재. 즉, 교차구간에서는 차량통행에 따른 사고위험이 존재하므로, 보행자가 교차구간의 교량에서 조망가능한 공간 조성으로 변경되어야 함
수변의 상징성, 다양성 향상	● 교량의 디자인 특화 및 상징조형물의 설치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 ● 산책로의 곡선화 및 비오톱 조성을 통한 자연체험 교육의 장 조성 ● 조형물, 분수시설, 야간조명 등 인공시설물을 이용한 다양한 경관연출		■ 위 '조망공간 확보'의 3번 지침과 관련하여, 교량 디자인은 중요하나 실제로는 교량설계시 '경관' 관점 반영여지 미흡 ■ 예시사진은 도심내 하천에서의 교량디자인이나, A군은 농경지 사이에 흐르는 하천이 대부분으로 맞지 않음 ■ 비오톱(biotope)은 종다양성을 위한 것이나, 여기서는 개발되지 않은 수변에 인위적으로 '비오톱'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 필자 주 : 본 글에 인용된 국내 '2025 A군 기본계획'의 그림과 표와 사진들은 글의 전개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군과 군내 여러 지명 등의 실제 명칭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양해바랍니다.

각 지침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간단히 적어보았다.

경관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다시 요소별로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갖는 문제점을 조금 더 명확히 알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2〉를 함께 비교해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3. 기존 하천경관 가이드라인 작성의 문제

〈그림 2〉와 〈그림 3〉의 기본도에서, 한 가운데에 표시되어 있는 '조망권 확보'를 나타내는 V자 모양의 화살표를 보길 바란다. 모두 같은 지점에 표시되어 있지만, 조망대상이 '하천'인가 '평야'인가에 따라 벌어진 방향이 다르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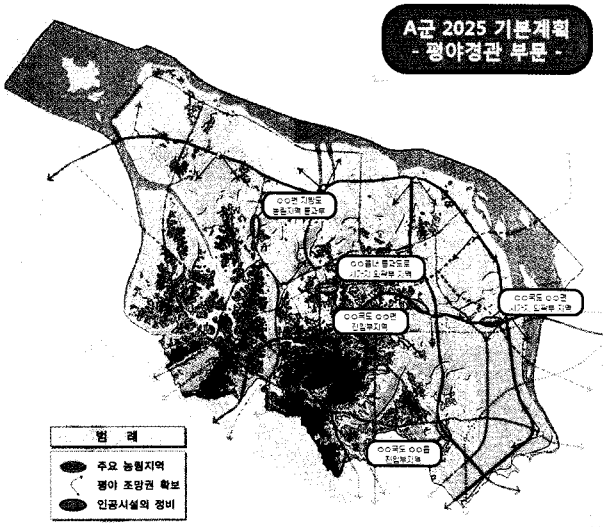
이는 '경관유형별'로 계획하는 데서 오는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해당 조망점은 두 개의 기본도 상에서는 중요한 조망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조망점에서의 조망대상인 하천과 평야의 경관을 관리하고,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경관정책은 바로 이러한 실질적 근거를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별개로 계획되기 때문에, 실제 경관정책을 집행하는 경관행정 단계에서는 역시 개별적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정책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의도했던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그것을 활용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경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기보다, 기본계획 수립자체가 '부문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포괄적이고 지역적이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는 것이 계획수립 절차상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보고 느끼는 것에서, 하천경관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관가이드라인의 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군단위 지자체의 하천경관계획 수립과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림 3〉 2025 A군 기본계획의 '평야경관'부문

*필자 주 : 본 글에 인용된 국내 '2025 A군 기본계획'의 그림과 표와 사진들은 글의 전개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군과 군내 여러 지명 등의 실제 명칭을 표기하지 않으므로 양해바랍니다.